

## 경기도, 19일부터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 추진

### ‘잔반 줄이기 실천’으로 음식물쓰레기·온실가스 최소화로 공공 RE100 실현

경기도가 3기 레드팀의 제안으로 19일부터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

3기 레드팀은 지난 14일 도청운영위원회에서 식자재 절약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성공적인 ‘잔반 줄이기 실천’과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먼저 2월을 ‘잔반! 퇴출!’ 실천 기간으로 정해 19일부터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1호 도전자로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에 참가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구내식당은 하루에도 수백 명 이상, 약 1천 명 이상이 식사를 하는 곳”이라며 “오늘부터 ‘잔반 없애기’ 캠페인을 벌이는데 제가 1호 도전자로 시도를 했고 잔반 없이 식판을 비웠다고 말했다.

이어 “직급별로 도청 직원 5명을 다음 챌린지 후보로 지명하겠다”면서



“우리 구내식당부터 잔반을 없애 경비와 쓰레기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조치를 경기도청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가 다음 도전자로 지명한 5명은 오호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엄기진 후생복지팀장, 강민찬 주무관, 최동호 주무관



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깨끗한 식판’ 인증과 함께 각자 5명을 다음 도전자로 지명하여 인증샷 챌린지를 이어가게 된다.

인증샷 이벤트와 함께 도는 2월 한 달 동안 ‘잔반! 퇴출!’ 실천 우수 직원을 선정해 간식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어낼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내식당 내 패널 전시와 일일 잔반 발생 현황판을 게시해 정보를 제공하고 ▲잔반 유무에 따른 퇴식구 분리 운영 ▲잔반 줄이기 실천 영상 제작 등의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을 ‘잔반! 퇴출!의 날’을 운영하여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잔반 줄이기 실천’ 외에도 3기 레드팀이 지적한 ‘관행적인 주간업무보고서 작성’, ‘도지사 참석 행사-일정의 잦은 변경’ 등을 도정에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주간업무보고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자. 꼭 필요하면 제목과 핵심만 나오게끔 해서 짧게 작성해달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좋지 않다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는 잦은 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는 2월 안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보완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 경북도, 정월대보름 도민 안전을 책임진다!

### 정월대보름 행사 사전 안전점검 실시

경상북도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시군·관계기관과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정월대보름은 2월 24일로 도내에서는 포항, 안동, 영천, 경산, 청도 등지에서 달집태우기, 민속놀이, 풍물 공연 등 정월대보름 행사가 개최된다.

경북도는 22일 1만 명이 모일 것으

로 예상되는 청도군 정월대보름 민속 한마당을 시작으로 10개 시군, 11개 행사에 대해 사전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

합동 안전 점검에는 경북도와 시군 안전관리부서 외에도 시설물·전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적정성 여부,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기타 위험요소 확인 등이다. 점

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개최 전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해 안전한 축제 개최에 힘쓴다.

점검단은 정월대보름 행사 특성상 화재 예방과 대책에 중점을 둔다. 행사 장소와 인근 민가와 관람객 간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충분히 비치하도록 유도하고, 위험 지역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 체계 확보 등



예상치 못한 사고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조치한다.

김학균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사전 점검과 당일 모니터링을 통해 시군 요청 사항을 지원하고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 ‘의료 현장 복귀해 환자 곁 지켜달라’

### 전남도, 집단 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 수립해 대응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환자 곁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0시 기준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전라남도 호소문’을 통해 “고령층 등 의료 수요가 높고, 의료 기반시설도 열악한 전남에 이번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까지 발생하지 않을지 도민의 불안과 염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굳은 의지와 사명감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준 의료인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19팬데믹 기간 몸을 사리지 않고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지켜주시던 진정한 영웅”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지금도 의료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다”며 “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본연의 자리인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신설은 사회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

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사회적 지도층인 의료인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 지킴이로서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도록 의료현장에서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남도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전남도와 시군 보건소에 비상진료 대책반을 설치하고, 보건기관과 공공병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제도 구축했다.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는 미리 진료를 받으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도록 하고,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를 받으려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정보도 매일 정비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 과수화상병 예찰조사원 역량 강화 교육

### 도농기원, 20일 과수화상병 예찰 요령 교육·궤양 제거 시연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0일 천안시에서 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수화상병 예찰 요령을 교육하고 궤양 제거 시연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군별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담당자들과 신규 채용된 예찰조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으며, 도내 14개 시군 과수화상병 담당자와 예찰조사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22년부터 월동기 궤양 제거 및 사전 전염원 예찰조사(11월~4월)를 도입해 추진 중으로,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36개 과원 32.4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생육기 과수화상병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교육 참가자들은 직접 궤양을 제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출구마름병과 검무늬병 등 유사 증상을 구분하고 판별하는 법을 익혔다.

또 월동기 사과·배 과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궤양 증상 중 2~3월부터 물오

름기가 시작돼 궤양 부근에 물에 데친 듯한 수침상 증상과 수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관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아산시의 사전 예방 우수 사례 발표와 올해의 과수화상병 억제 방제 보급 추진 사항 등을 공유하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김시환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4월까지 전 시군 예찰을 강화해 궤양 제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4월 중 생육기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해 발생 상황 가상훈련(CPX)을 개최하고 공격 방제 및 손실보상 표준운영절차(SOP)를 정비해 방제·손실 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농업인 생활 안정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2월경 본원 내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실’을 구축한 바 있으며, 올해 과수화상병 정밀진단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 서울시, K-복지 표준 제시할 '서울 안심소득' 전국 확대 위한 토대 마련 착수

### 안심소득-현행 제도 간 정합성 검토로 '탄탄한 정책 토대' 구축할 전문가 T/F 구성

대한민국 지자체 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도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통해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을 내놓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 '안심소득'을 전국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본격 연구·검토에 들어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향형 복지제도로 작년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1단계)'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 비교가구 1,039)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 올해 심층 검토 및 연구로 전국 확산의 정책 토대를 닦는다는 방침이다.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 근로소득 증가가 확인됐으며, 비교 가구 대비 ▲교통비·식품·의료 서비스 등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하여 설계돼 있

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한 만큼 T/F(특별반) 및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 입증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안심소득'을 통해 현행 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특별반)'를 꾸렸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위원장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촉했다.

T/F는 2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회의를 총괄하는 기획위를



비롯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에 '안심소득'으로 대체 또는 보완 가능한 제도를 분석, 실질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개편안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양극화 완화 및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 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안심소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교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광수/기자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

##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 첨단산업육성 지원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먼저, 작년 8월 제정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차전지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현재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기반구축'과 `글로벌 초격차 확보 첨단기술 개발(R&D)'을 비롯해 총 8개 분야에 2,3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도



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시의성을 갖춘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449억원) ▷8인치 SiC웨이퍼 기반 멀티센터 SoC 플랫폼 개발사업(100억원)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32년까지 2만명) 등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미래산업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2022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

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했으며 2024년에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실현 산업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 ▷5G 기반 실감콘텐츠산업 거점육성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원을 비롯해 연구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지원체계 확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80%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라고 평가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윤근수/기자

#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주영상미디어센터와 간담회 실시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4년 2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의회 1층 모임실에서 원주영상미디어센터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사업 보고와 현안 사항에 대한 토의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기 위원장, 권아름 부위원장 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이슬임 센터장, 차중구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사업 방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 됐다. 특히,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권 확장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 확대 등 영상미디어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현안 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회와 발전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누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기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와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주시의회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간의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원주시의 문화 및 미디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환/기자



# 성남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성남시의회는 2월 20일 10시 의정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2022년 2월 17일 처음 구성되어 활동했고, 올해 두 번째 구성을 하게 됐다.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윤리·정령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2월 17일부터 2년이고, 이 자리에서 이우복 세무사(세무법인 해상 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검칙과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광순 의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

키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바람이 큰 만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의 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확립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특별위원회, 2005년 APEC 개최지 부산 방문

## `2025 APEC 정상회의'는 인천에서

적극 활용하고자 진행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유치 활동과 준비 사항에 대한 논의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인 인천의 강점과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희 위원장은 "인천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이 같은 점에 안주하지 않고 인천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개최 도시 확정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강한 의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인천시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APEC 사무총장 미팅, 공식 SNS 개설, 범시민 유치위원회 발족 및 지지선언 등 유치 활동 기반 마련과 함께 각계각층 APEC 릴레이 지지, 100만 서명운동 전개, 시민단체 연합 지지선언 등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로 범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현재 단계별로 체계적인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모 절차를 준비하는 등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25 APEC 정상회의'는 인천지역 내 직접 효과 523억 원, 생산 유발 1조5천억 원, 부가가치 8천300억 원, 취업 유발 2만여 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의로서 오는 4월 이후 개최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종남/기자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최근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정상회의장인 벅스코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을 둘러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부산 방문은 `2005 부산 APEC' 개최 시설을 찾아 다양한 우수사례를 수집해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활동에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부위원장, 울산시 공공목적 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지자체도 공공와이파이 등 정보통신 서비스 직접 제공 필요

울산광역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20일 오후 3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김기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관계전문가, 시, 구·군 관계 공무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공공목적 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도 공공목적의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발맞추어 울산시의 공공 통신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 박동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한국 비면허대역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현황 및 전망' ▲ 강유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등록 관련 주요내용' ▲ 신천우 (주)쏘우웨이브 대표의 `혁신적인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초거대 규모 Massive AIoT 무선 자가망 구축 방법' ▲ 정규식 경남

대학교 교수의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한 시민통신비 경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훈 의원은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상황, 대중교통 정보, 주차정보, 대기질과 같은 환경정보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IoT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산업단지 기반 조성사업에 자가통신망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통신산업 서비스를 창출해 나간다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기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통신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영역이었으나, 공공에서 시민들의 통신서비스 비용 절감,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통신을 공공재 시각으로 접근하고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동환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사회적 활동의 도시정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면허 취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파수인 비면허대역(ISM)을 적극 활용해서 자가통신망 연계를 통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유신 사무관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의 통신복지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면 공익성, 재정 능력, 자체망 서비스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의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우 대표는 자가구축망과 함께 와이이파이(Wi-Fi) 무선통신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보다 먼 거리까지 와이이파이를 잡아주고 폭우·전파 방해 등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지 관리비용도 최소화해야 학교, 광장, 축제현장 등

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규식 교수(경남대학교)는 "지자체의 통신망 구축은 통신비 경감의 복지, 소상공인 홍보 지원, 개인 건강관리·재해재난 안내 등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향후 자가망 운용을 지속하기 위한 수익형 공공 데이터 통신망 구축에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종훈 의원을 좌장으로, 김종훈 울산시 정보화담당관,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일환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소재지원담당, 박재영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가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방향, 울산시 차원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김준순 정보화담당관, 장병태 원장, 김일환 단장은 "자가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는 제반 비용의 추산, 활용 데이터 발굴·보안대책 등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면서 사업추진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재영 연구위원(울산연구원)은

"대구는 자가망 구축을 통해 행정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며 "콘텐츠 개발 등 소프트웨어의 관리와 대민서비스 추가 확보에 노력하고 민간 통신망과 차별화된 통신사업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김종훈 의원은 "서울·부산·대구 등은 이미 자가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 부산은 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무료 제

공하고 대중교통 현황, 도로 소통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까지 하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는 올해 국비 예산 30억(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여 성서산업단지 등 거점으로 `자가통신망'을 활용하여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통신망 구축은 시민 편의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규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병민·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 제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경 제 부: 내선 (114)	오 리 언 부: 내선 (118)
	스 포 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합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이상원 도의원, 'K-컬처벨리사업(CJ라이브시티)' 정상화 촉구

국도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 중재안 수용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일시 중단된 'K-컬처벨리사업(CJ라이브시티)'에 대해, 경기도는 국도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1884번지 일대 약 10만평에 건설중이던 CJ라이브시티 공사가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가운데 정지권과 시민들이 경기도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K-컬처벨리 사업을 CJ라이브시티가 개장되면 향후 10년간 30조원의 부가가치와 9천명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20만명의 간접적인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이 사업은 경기도와 사업 주체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사업주체인 CJ가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양시민들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됐다"면서 "국도부가 중재안을 제시했고, CJ가 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경기도가 조속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민 40여명도 이날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방청한 뒤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경기도와 CJ는 국토부 중재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 퍼포먼스를 했다.

시민단체 '일산지킴이' 회원과 고양시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8년간 CJ라이브시티가 개장되어 침체된 일



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공사가 17%나 진행되다 중단되는 바람에 CJ라이브시티 아레나(공연장)는 거대한 흉물로 변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일산지킴이' 임동수 대표는 "국토부까지 나서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김동연 지사는 즉각 이를 수용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들은 이날 오후에는 고양시장 향동에 있는 라이브시티 공사현장을 방문해 CJ측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혁 고양병 국민의회 예비후보도 공사현장을 방문해 "인천과 서울이 각각 아레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먼저 시작한 고양 라이브시티는 공사중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기북부 지역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김동연 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로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처벨리 조성 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총면적 10만평에 공연장, 스튜디오,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짓는 총사업비 1조8천억(2016년 기준)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건축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상승하고,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경기도가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공사가 중단됐었다.

국도부는 지난해 10월에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경기도측에는 공사완공 기간 연장과 지체보상금을 면제를 요구하고 CJ측에는 지체보상금 1천억원에 해당하는 지역기여를 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강력 촉구

성남시가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 제시 요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 특히 45미터이하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에 의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 졸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 하고 있다"고 전하며,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발표한 성남시 3대 공약의 이행 여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성남시 전체는 물론이고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한 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성남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설득할 것",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할 것", 그리고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밝히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에 안전 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2층 주거지역은 3층 주거지역으로, 3층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성남시에는 45미터에서 193미터 사이의 고도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특별법' 통과 이후 고도제한 규제에 의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5미터 이하, 최대 15층의 건물

만 지을 수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성남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성남시, 경기도, 정부가 해결책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15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 동참

DMZ, 접경지역 등 경기북부는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지역, 새 이름을 '경기평화특별자치도' 제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1일 '내가 생각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1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의회(국민의힘, 연천)이 시작한 활동이다.

릴레이 캠페인은 경기 북부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SNS 등에 게시한 뒤, 다음 캠페인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염종현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날 대표의원실에서 '경기평화특별자치도'를 새 이름으로 제시하는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북부는 DMZ, 접경지역인 만큼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경기평화특별자치도'라고 작명하게 됐다"며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주자로는 경기도의회 안광룡 의원(시흥1)과 이인규 의원(동두천1)을 지목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솔터고등학교 화재 복구 현장 방문해 지원 방안 논의

김정호 대표의원 "새 학기 맞아 등교와 학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 당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20일,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피해 복구가 한창인 김포 소재 솔터고등학교를 방문해 조속한 복구와 학업 정상화를 당부했다.

이날 화재 복구 현장에는 김정호 대

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시용·오세풍·홍원길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화재 현장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조속한 수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등교와 학업 정상화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특히 고3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이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과 긴밀하게 협의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5월 말경으로 예정된 복구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기를 당부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솔터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솔터고등학교는 지난 1월 24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목적강당(식당) 및 필로티 연결 통로가 소실 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화재 복구를 위한 철거 및 청소 작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상/기자

**Art Valley ASAN**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플랫폼이  
펼쳐집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아산**  
**신정호 아트밸리를 품다**

여주시 오학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및 웃놀이 대회 개최

오학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7일 오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정기회의 및 웃놀이 대회를 개최했다.

정기회의는 신규위원 위촉, 분과구성, 2024년 자치계획 예산보고, 현안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 위원으로는 강중욱, 정강찬, 박해숙, 윤향숙, 신기환 등 5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문화체육보과, 마을공동체분과에서 마을 의제 발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웃놀이 대회에는 이충우 여주시

장을 비롯해 오학동장, 오학동 주민자치회장 등 주민자치위원 20여명이 참석하여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웃놀이 대회를 통해 오학동 주민자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운 오학동장은 "오늘 위촉된 위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학동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주택,아파트 화재 국민행동요령' 자체 제작·배포

시청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에 8000부 배포... 화재 예방수칙과 대피 요령 상세 소개

성남시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과 아파트 화재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주택(공동주택) 화재 국민행동요령' 안내문 8000부를 최근 성남 시청과 3개 구청 각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게시했다.

안내문에는 ▲화재 예방수칙 ▲화재피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화재경보기 설치방법 ▲화재 현황 및 주요 원인, 사고사례 등의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합선, 전기 스파크, 과열 등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과 화재피난 중 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대피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 요령'을 관내 공동아파트 관리사무소 280단지에 배부·게시하고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청사 내 64개 홍보 모니터를 활용해 홍보 동영상도 송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화재는 부주의에 발생한 비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성남시는 주택과 아파트 화재 예방수칙 및 대피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치매안심센터, 선한빛요양병원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 치매안심센터는 20일 광주시보건소에서 선한빛요양병원과 지역 내 치매 환자의 효율적인 건강 문제 관리와 치매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조정호 보건소장과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치매 전문관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협약기관의 개인별 맞춤형 치료 및 심층 상담을 연계하고 선한빛요양병원은 지역 어르신 및 치매 환자에게 치매 환자지원, 인지 증진 프로그램 제공, 치매 조기 검진 등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을 도와 지역 내 어르신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건강 문제 및 치매 관련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선한빛요양병원은 치매 파트

너 교육, 치매 관리사업 홍보 등에 참여해 치매 예방과 치매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에 동참함으로써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조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중증화 진행의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투약 관리와 상담, 정기검진 등 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편안하고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작은 행정에도 정성 다하면 고양시 변화 찾아와"

시장-44개 동 동장 간 현안 논의 위한 신년 간담회 열려

"모든 행정은 동(洞)으로 통(通)합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9일 고양시 44개 동을 관할하는 각 동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민원의 원활한 전달과 해결을 통해 고양시의 확실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44개 각 동이 관할하는 인구는 많게는 4만여 명, 적게는 1만 명으로, 이번 간담회는 각 동별로 주민 여론과 핵심 민원을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렸다.

이날 마을도로 확장, 구거(개울) 준설, 지하보도 누수, 주차장 마련 등과 같은 10여 건의 주민 숙원이 건의됐다.

특히 통장·주민자치위원 등 동장들과 늘상 접촉하는 주민 대표뿐 아니라 항공대 등 지역대학 및 엠지(MZ) 세대의 민원도 핵심사항으로 건의되어 이목을 끌었다.

이어진 시장과 동장 간 일문일답 시간에는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큰 변화는 작은 행정들의 총합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거대한 기계도 나사, 볼트 등의 미세부품에 의해 지탱되고, 수심 키로에 달하는 무거운 짐을 얇은 노끈으로 들어올리며, 무거운 수레도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1%의 사소하고 단순한 것들이

100%의 거대하고 복잡한 미래를 완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역린'으로 유명해진 중용 23장의 명언을 인용해, "공직자들이 사소한 민원과 행정에도 정성을 다하면 고양시에는 반드시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거리에 10억 원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1억 원을 들여 가로수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정책의 미세한 방향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대한 수레를 멈추게 하는 것은 작은 돌부리"라며 "가로수 식재, 보도블럭 정비, 주차단속, 쓰레기 투기 단속 등 시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 해결은, 고양시 발전을 위한 길목의 작은 돌부리를 없애고 미래를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과 같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동장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시 고양시에 가장 유치하고 싶은 기업은 무엇이나"고 묻자, 이 시장은 "구글 아시아 본사를 유치하고 싶다.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고양시 첫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위한 원대한 꿈을 드러냈다.

한영기/기자



수원시, 벤처기업 인증·제품 개발 지원한다

'2024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수원시가 '2024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촉진지구 내 기업의 인증·제품개발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이 대상이다. 수원델타플렉스 1~3단지 등 공장 등록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연구소는 공장 미등록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지원', '제품 개발 지원' 등 2개 분야가 있다. 벤처기업 확인 인증, 시스템 인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인증,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찾아가는 경

영·지식 세미나를 연 2회 열며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증 지원과 제품개발 지원 분야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벤처 인증은 기술확인 평가료·심사료(최대 30만 원), 벤처 현판 제작 실비(20만 원 상당)를 지원하고, 시스템 인증은 ISO9001(품질)-ISO42001(인공지능)과 같은 국제표준 인증 신규·갱신·사후심사 비용을 최대 100만 원(소요 비용 80% 한도) 지원한다. ESG평가 인증 비용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제품 개발 지원은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중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다. 2023년도 제품개발 지원 수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제품 제작은 제품 디자인·3D모델링·기구 설계 등 관련 비용을, 디자인 개발은 기본·응용 디자인시스템 개발·

매뉴얼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한다. 두 분야 모두 최대 400만 원(소요 비용 80% 한도)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경영·지식 세미나는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연다. 경영에 필요한 제도·지식 등을 안내하고, 전문 강사를 초청해 ▲벤처기업 확인증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비 ▲ESG경영 지도 등 기업 경영 트렌드에 맞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ESG 도입 컨설팅도 제공한다.

공고문과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경기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관계자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 내 네트워크를 형성해 더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신입 공무원 49명 공개채용...내달 25일 원서 접수

일반행정직 5명, 시설직 23명 등 9급 공채 47명...7급 수의직 2명도 선발

용인특례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입 공무원 49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내달 25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를 위해 각 분야에서 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분야는 ▲행정9급 5명 ▲사무9급 3명 ▲전산9급 2명 ▲사서9급 4명 ▲공업(전기)9급 1명 ▲녹지9급 1명 ▲환경9급 3명 ▲일반도목9급 14명 ▲건축9급 6명 ▲지적9급 3명 ▲방재안전9급 3명 ▲방송통신9급 2명 ▲수의7급 2명 등이다.

시는 각종 개발행위와 시설물관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목직

채용 규모를 전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화재 등 재난 안전을 위해 방재안전직도 충원한다.

시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직 입문 기회를 제공키로 하고 올해 7명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장애인은 행정 3명 2명, 저소득층은 행정 2명 방재안전 1명 등이다.

용인시 2024년 공채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내달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22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시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직렬과 거주지를 고려해 부서에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

이 많이 응시해주기 바란다"며 "공정한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이천시, 3월 11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기업활력 모색

이천시는 정보 부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1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는 경기도 지원사업(30분), 수출입 지원사업(30분), 기업자금지원(30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30분) 등 총 120분 동안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혁신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지원사업은 물론 기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에 대해 설명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접수된 내용 중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많으니 많은 분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 핸드폰과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하고 있으니 작은 불편도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금 조달, 수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천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하는 모든 기업체는 2024년 지원 사항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받을 수 있다.

김범상/기자



# 안양시,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시민 의료공백 최소화해 총력

###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건강, 안전 직결되는 문제...행정력 집중"

안양시가 최근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현황 점검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시는 20일 오전 9시45분 시청 3층 간부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의료공백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진료개시명령의 대상이 되는 관내 병원은 한림대성심병원(동안구)과 안양샘병원(만안구) 등 2 곳이다.

시는 전날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한림대성심병원은 레지던트 중 20여명이 사직원을 제출했으며, 안양샘병원은 아직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에 따른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보건소는 이달 7일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며 의료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향후 의료공백 발생 시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이 진료 시간을 연장해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사회 및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상황 발생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진료시간 현황은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었으며,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20(시도콜센터) 등을 통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우용/기자

# 내 일의 변화, 내일의 혁신!...'화성시 내일의 혁신가' 공모

화성시가 화성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 일의 변화, 내일의 혁신!'을 주제로 '화성시 내일의 혁신가'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잘 바꿀 수 있는 것은 업무 담당자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화성시 내부 전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답습되는 비합리적 업무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공모 주제는 △내 업무에서 소소한 변화로 이를 수 있는 행정개선·민원편

의 등 확실한 행정변화 방안 △내 업무에 관행되던 비합리·불필요한 업무 버리는 방안 △내 예산에서 지출절감 또는 재정수입증대 방안 등 총 3가지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화성시 공직자들이 주도적 행정혁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조직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당자가 직접 제안하는 만큼 신속한 실행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업무연찬에 적극적이고 시민이 원하는 화성시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자 한다"며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 개선이 100만 도시 행정체계 혁신으로 이어지고 시민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3월 11일까지 접수된 제안에 대해 담당부서, 제안평가단,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채택안과 장안등급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연 60만 원 지급' 3월부터 접수

###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구청 방문 및 온라인 1차 신청·접수

안산시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관내 농민들에게 연 최대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2024년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를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분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부터 반기별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 농민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연간 1회 신청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1차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은 2차 신청 시 추가 접수할 필요가 없다. 1차 신청 시기를 놓친 농민은 하반기 2차 신청 기간(9. 23. ~ 10. 24.)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안산시에 연속 2년(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 시작일 기준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에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주민은 대부분행정복지센터 내 대부분농정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1차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민에게 올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하남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 '2024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 체결



하남시가 하남시청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2024년도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속합의는 2023년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맺은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연간 세부사업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부속합의에 따르면 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캠퍼스투어 및 기업탐방 ▲학교특색사업 ▲고교특성화사업 ▲마을체험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등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남시에서 38억 2천만원, 교육지원청에서 23억 8천만원 등 총 62

억원의 사업비가 하남지역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투입된다.

이현재 시장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에서는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 개선에 대해 보조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하는 한편, "가칭 한울중 조기 개교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성미 교육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하남시에 감사드리며, 하남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설 선물은 자연과 농부의 진심을 담은  
**봉화장터에서!**



<http://Bmall.go.kr>

특산물을 구입하려면 인터넷에서 '봉화장터'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봉화군

# 전남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취약시설 정비·복구 속도

## 위험요인 차단 위해 사업 조기 착수로 우기 전 마무리 목표

전라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재해 예방사업, 하천 정비사업 등 취약 시설 정비·복구 사업을 조기에 착수, 우기 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 저수율은 2월 중순 현재 수위지 86%, 저수량 82%로 평년보다 약 125% 늘어 생활·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 피해가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상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해마다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 장마철에 접어드는 6월부터 강수량이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저한 사업장 관리 등 선제적 재해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여름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180지구 2천390억 원 ▲재해복구사업 7지구 544억 원 ▲하천정비사업 72지구 951억 원 등 3개 분야에 3천885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2지구 674억 원, 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48지구 1천23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8지구 311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1지구 127억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61지구 43억 원 등이다.

피해시설 항구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사업은 7지구 54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활용해 하천 범람 우려 지역 하상 준설과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물 긴급 정비로 여름철 사

전대응을 강화하고,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도 응급복구 및 긴급 조치를 위해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치수안전 확보 등 재해에 강한 하천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65지구 928억 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7지구 23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환경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지방하천으로 전국 최대 지정(74개소 121km)돼 국비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로 대규모 재해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도민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재해 예방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지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합평군, 자동차 번호판 교부 ONE-STOP 처리 호평

2024년부터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직영 운영

전남 합평군은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번호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기존 자동차번호판대행소가 폐업하면서 군민이 새번호판 발급을 위해서 인근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자동차 제작소를 직영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일반적인 증명명 발급과 달리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교부 대행업소가 있는 타 시·군에서 번

호판을 교부 받으려면 먼저 시·군청에서 등록신고를 해 번호판을 부여받고 다시 교부대행소에 가서 번호판을 부착 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한다.

합평군은 이번 번호판 자체제작소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교부하여 주는 등 민원인이 타지역의 번호판 교부 대행소에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자동차번호제작소 직영 운영을 통해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차량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강진원 강진군수, 청자축제장 현장 점검 나서

홍매화, 유채단지 개화상태 확인

강진원 군수가 지난 16일, 이달 23일부터 3월3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강진청자축제 현장 점검을 찾아 점검하고 성공적 축제 개최를 위해 민간 도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군수는 주차장에서부터 관광객이 가는 동선대로 축제장을 둘러, ‘축제 군수’답게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일일이 현장을 살피고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청자축제장 주차장 인근에 자리 잡은 6년생 홍매화 150그루는 지난해 청제 축제가 끝나후 5월개 식기 시작해 군에서 가꿔왔다. 특히, 올해 축제 기간과 개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 비닐하우스 도포 시기를 조정하며 정성을 들였다.

강 군수는 올해 처음 축제장에서 볼 수 있는 귀한 모습, 홍매화와 남도에서 가장 먼저 핀 유채꽃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자의 상징인 대형 화목 가마터를 어린이들이 청자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하고 맞은편 고려청자 디지털박물관의 플레이라돈을 연결해 키즈 존을 강화할 것과 지난해보다 두 배로 길어 긴 족욕 체험장을 쾌적하게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교통 혼잡과 주차 대란을 막기 위해,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축제장 인근 교통통제와 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강 군수는 강진 민간인 개발 신상품 전시실을 둘러보며 “청자를 박물관에서 꺼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용기로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자축제장 끝에 위치한 한국민화 박물관에 들러, 소장품을 토대로 한 다양한 굿즈 개발 등을 통해, 청자축제와 원원할 수 있도록 협업하라고도 전했다.

이어 22개 민간 도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강진에서 청자를 빚고 있는 개인요가 K-컬쳐의 원조, 고려청자의 역사를 내일로 계승하는 주인공들”이라며 “청자축제를 통해 강진의 유구한 청자 자산을 전 국민에게 알려, 개인요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올해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선포하고 강진에서 소비한 여행경비의 50%를 최대 20만 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2월 1일부터 시작된 반값 관광에는 15일 기준으로 1,987팀 5,829명이 신청하며 대박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추윤호/기자

#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원급 의료기관장 간담회 개최

## 의대 증원 관련 총파업 시 진료시스템 유지 등 선제적 대응

순천시는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총파업 시 진료 불편 최소화 대책과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순천시 병원급 의료기관장 간담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19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톨릭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 순천제일병원, 순천한국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6곳, 전남 최초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 2곳, 전문병원 등 총 11곳의 병원장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공백 사전 대비와 시민들이 의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역 병원장들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일부터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총파업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정주여건 개선과 응급·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병원을 하나로 연결해 대학병원 역할을 하는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명옥 성가톨릭병원장은 소아·임산부 응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순천형 소아응급실을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최종 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병원장들은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설립 진행 중인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지역 의료기관 연계·협력체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관구 순천시장은 “현재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장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과 직결

이승준/기자

# 나주시, ‘나주배 실감콘텐츠’ 국비 1억5천만원 확보

## 2024년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최종 선정 쾌거

전라남도 나주시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도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은 진흥원이 도내 우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전남 22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진흥원이 올해 모집한 ‘실감콘텐츠’, ‘공연콘텐츠’, ‘ICT 융합 콘텐츠’ 3개 분야 6개 과제 가운데 나주시는 ‘실감콘텐츠’ 분야에 선정, 총 사업비 3억 원 가운데 국비 1억5000만원(시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나주시가 신청한 실감콘텐츠는 어린이 농부 ‘이화’와 함께 나주배의 재배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10분 분량의 인터랙티브(상호작용) 영상 콘텐츠이며, 나주배박물관 2층 배운화관에 구축된다.

나주시는 2월중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올해 12월까지 콘텐츠 개발 및 체험관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일반에 개방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 1992년 개관한 나주배박물관은 2004년 전시관 리모델링 이후 크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번 실감콘텐츠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보다 획기적인 체험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안/기자



나주시는 특히 현재 박물관이 추진하고 있는 배따기 체험,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실감콘텐츠와 연계한 기획전시 개최 및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체 체험 코스를 신설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배박물관에 실감콘텐츠 체험관이 구축되면 볼거리와 재미, 자녀교육까지 모두 갖춘 명소가 거듭될 것”이라며 “배박물관이 지역을 뛰어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시, 10개월간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행 축하드립니다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임산부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남원시에 거주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청분야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본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오는 3월 10일까지 온라인 예코이몰에서 신청하거나 임신·출산 증명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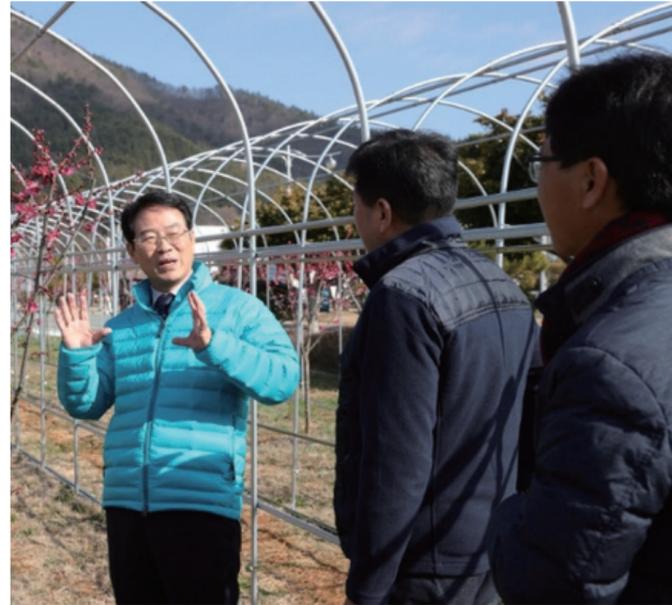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 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신부 1인당 년 자부담 9만6천원을 포함한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오는 4월부터 12월 10일까지 구입 가능하며, 1회 주문 시 최소 5만원 이상이고 상한액 없다.

남원시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임산부에게는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청을 요청한다면서 향후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신안군, 10만 쌍 철새 번식지 보전을 위한 13년간의 여정

세계 최대 바다제비 번식지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앞장



신안군은 세계 최대 바다제비 번식지이자 천연기념물인 칠발도와 구굴도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복원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신안군의 넓은 해상에 분포한 작은 섬들은 봄, 가을철에 이동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중간 기착지(stopover site)이자 세계적인 주요 바닷새 번식지이다. 바닷새 집단번식지로서 학술 가치가 뛰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금면 칠발도와 흑산면 구굴도가 대표적이다. 두 섬은 4종의 바닷새(뽕쇠오리, 바다쇠오리, 바다제비, 습새)가 10만 쌍 이상이 번식하는 국제적인 바닷새 집단번식지이다.

그중 바다제비는 6월에 와서 10월까지 번식하는데 섬에서 자생하는 밀사초 뿌리 주변의 부드러운 흙을 파서 만든 굴이나 바위틈에서 번식하는 종이 다. 전 세계 개체군의 80% 이상이 신안 구굴도(최대 10만 쌍)와 칠발도(1만 쌍) 두 섬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종보전을 위한 서식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생태적인 가치 또한 높다.

하지만 섬에서 자생하지 않았던 쇠무릎이 유입되어 번식지 교란이 일어나 매년 많은 수의 바다제비 폐사가 확

인됐다. 이에 신안군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해양항만청, 지역 대학교 등 관련기관과 번식지 복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2011년부터 쇠무릎을 제거하고 번식에 필요한 밀사초를 이식하는 서식지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최대 1,000마리가량이 폐사했던 바다제비가 복원 사업 후 매년 점진적으로 피해 개체수가 줄었으며, 작년 조사 결과 95% 급감한 43마리만 확인됐다.

또한 군은 바다제비 서식지 개선 사업 이외에도 호주 연구팀(Australasian Seabird Group)과 국제 공동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 2022년부터 바다제비의 먹이, 번식개체군 변화, 월동지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바다제비의 생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20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연구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철새 서식지 개선을 위해 13년간 꾸준히 추진한 사례는 신안군이 전무후무하다”라며, 신안의 섬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오는 섬들의 낙원이자 그동안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실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 광주광역시 'GCC 사관학교' 입학설명회 뜨거운 관심

예비지원자 300여명 참석...개별상담특강시설투어 등 기대 높여

글로벌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4일 서울에 이어 20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입학설명회가 예비지원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두 차례 열린 입학설명회는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별상담 부스를 마련해 단계별 교육과정, 산학연계 취업지원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특히 문화콘텐츠분야 유명 웹툰작가와 제작자가 특강을 펼친 미래 콘텐츠 창작자들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실감콘텐츠 제작의 핵심 거점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를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지난 14일 1차 서울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예비지원자가 참석한 데 이어 20일 광주 실감콘텐츠큐브에서 열린 2차 설명회에는 200여명의 예비지원자가 몰렸다. 설명회는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특강은 네이버 웹툰작가 마인D의 ‘웹툰 제작 이야기’ 강의와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에 참여했던 국내 최정상 시각특수효과(VFX)

기업인 웨스트월드의 임주용 소장, 박지용 팀장이 ‘버추얼프로덕션 이야기’ 주제로 실제 현장의 실감나는 이야기를 펼쳐 예비지원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예비지원자는 “교육비, 거주지, 수료 이후 취·창업 등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상담해줘 지원 결심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광주 설명회는 직접 교육이 이뤄지는 광주실감콘텐츠큐브를 소개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광주실감콘텐츠큐브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어나갈 글로벌 콘텐츠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다.

광주시는 실감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웹툰 4가지 분야 교육생 150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교육생들은 단계별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비 지원 ▲수당 지원 ▲10년 이상의 강의경력, 현업 전문가 특강 ▲취·창업 연계 등을 지원받는다.

김병수/기자



# 전북자치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인 재생의료진흥재단과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의료진흥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생의료진흥재단은 지난 2021년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재생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R&D) 관리, 정책·제도 지원, 인력양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첨단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원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민미 원장이 손을 맞잡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권덕철 전북대학교 석좌교수와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가 참석해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협력 추진 ▲바이오분야 연구개발(R&D) 조성 위한 공동 협력 ▲바이오 분야 동향,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자료 및 조성 연구개발(R&D)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등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도에 큰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첨단재생의료기술 분야 협업을 기대하고 있으며, 재생医료를 포함한 바이오산업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진도군, 2024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피부과 무료 진료, 화재피해 주민 주택복구비 지원 등 89건

진도군이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제작해 배부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농림·축산 분야 18건 ▲해양·환경 분야 13건 ▲복지·보건·인구 분야 32건 ▲문화·체육 분야 3건 ▲안전·건설 분야 10건 ▲일자리·경제 분야 5건 ▲일반행정 분야 8건 등 총 89건이다.

군은 농림·축산 분야 신규시책으로 ▲친환경 과수, 채소 운반상차 지원사업 ▲대파 승용 정시기 지원사업 ▲대

파 작부체계개선 광복 생분해 필름지원 ▲시금치고사리 신속작목 육성 등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분야는 ▲영세어업인 선외기 지원사업, 복지·보건·인구 분야에서 ▲피부과 무료진료, 안전·건설 분야에서 ▲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등을 시행한다.

특히, 일반행정 분야에서 2023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보배삼소식통 공공엽의 제공 서비스를 기존 4

종에서 13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신규시책으로 ▲군민 행복교실 운영 ▲군민 리더대학 운영 등을 추진한다.

달라지는 시책의 자세한 내용은 읍행정복지센터와 연사무소에 비치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진도군 누리집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진도군 관계자는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 완도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징수율 1위 달성!

징수율 74.5% 기록, 전남 평균보다 29.8% 높은 수치

완도군은 2023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전라남도 도내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군은 2023년 이월 체납액 8억 4천 2백만 원 중 6억 2천7백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4.5%를 기록했다.

이는 전라남도 평균 징수율 44.7%보다 29.8% 높은 수치이며, 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높다.

군은 이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체납 고지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여 공매하는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강화했다.

군은 올해도 지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4년 이월 체납액은 13억 9백만 원이며, 약 80%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작년보다 더 많은 건수의 부동산 압류하여 공매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성과는 군민들의 납세 의식과 협조에 힘입은 것이다”면서 “올해도 전라남도 목표치보다 많은 체납 세액을 징수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방 자주 재원 확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준비 총력 추진

26일부터 시내버스 개편 노선 시행, 시민안내 및 민원응대 위해 공동추진단 가동 중



시스템(BIS)·단말기(BIT) 정비, 실시간 버스이동정보(초정밀 버스) 반영을 위한 교통안내 맵(지도) 및 인터넷 포털(다음·카카오 등) 기반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시내버스 정류장 531개소, 차고지 3개소 등 사전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 관련 부서 협의회, 동장회의를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개편사항을 안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버스내부와 정류장 노선안내도 교체, 시내버스 도착안내서비스(QR코드), 마이비카드(교통카드)와 버스정보

시스템(BIS)·단말기(BIT) 정비, 실시간 버스이동정보(초정밀 버스) 반영을 위한 교통안내 맵(지도) 및 인터넷 포털(다음·카카오 등) 기반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시내버스 정류장 531개소, 차고지 3개소 등 사전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 관련 부서 협의회, 동장회의를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개편사항을 안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노선이 처음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노선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문영역업체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교통카드 데이터, 통신사 신호 기반 유동인구, 버스 운행데이터 등)한 결과를 토대로 교통수요와 통행패턴을 반영하는 노선 개편을 추진했다.

박종배/기자

## 경북소방본부,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119구급 비상 근무 실시

### 비상대책반 운영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와 관련하여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예상됨에 따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20일부터 119구급 비상 활동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2월 20일부터 집단휴진 종료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집단행동 참여 의료 기관 파악, 구급상황 관리센터 인력 및 수보대 증설, 예비구급대 운영, 진료 가능 병원안내 등을 위한 119종합상황실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통신망 및 핫라인 점검 등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기간에는 상담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진료 가능 의료기관 안내, 중증 환자 등에 대한 군병원 등 대체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응

급환자 장거리 및 병원 간 이송 시 119구급차 및 구급 헬기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의료 정보시스템(e-gen),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경북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 등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실 등의 진료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 가능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고 응급실과 119구급차의 이용은 자제하여 주시길 도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으로 지역경제 이끈다!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대구·울산 지역간담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중소기업부 주최로 열린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대구·울산 지역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조기 정착과 성과 창출을 위한 박차를 가했다.

2023년 중소기업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 기획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올해 야심 차게 출범했다.

이 사업은 '24년부터 '26년까지(3년간) 총 3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10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2월 8일까지 추진한 참여기업 모집에 82개 기업이 총 195억 원의 지원사업을 희망해 지역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사업공고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중소기업부,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2월 20일(화) 간담회를 개최해 '레전드 50+' 추진현황 점검과 지방·중앙정부 간 협업 및 프로젝트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기업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3월 중기부의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최종 프로젝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프로젝트로 'ABB 융합 로봇SI 제조혁신'을 주제로 로봇 SI 산업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중기부의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사업 추진을 통해 최종 프로젝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해당 프로젝트가 지난해 11월 2일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된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실을 기해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ABB 융합기술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제조 산업을 앞장서 육성해, 대구가 대한민국 대표 로봇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청끝(청년이 끌리는)기업 발굴·매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3.8. 18:00까지 청끝(청년이 끌리는)기업 모집... 임금·소득, 고용의 안정성, 워라벨 등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 100개 사를 선정하여 홍보마케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2024년 청끝 (청년이 끌리는)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모집안내**

2024. 2. 15.(목) ~ 3. 8.(금) 18:00까지

청년친화 기업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

1. 신청방법: dodream@bepa.kr 온라인 접수 가능

2. 신청기간: 2024년 100개사

3. 지원대상: 부산시 관내 소재(본사 및 주사업장 모두)한 3년 이상 성장가능 중견기업 (2023. 1. 1. 이전 사업장 등록)으로, 사업실행 전년도 말(23. 12. 31.) 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4. 지원내용: 청년부담금 지원, 청년인재 채용 지원, 청년인재 교육, 청년인재 주거 지원, 청년인재 주택 지원

5.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청년두드림센터 TEL. 051-816-4688

부산시는 오는 3월 8일까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끝(청년이 끌리는)기업 발굴·매칭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금·소득, 고용의 안정성, 워라벨 등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인재를 적극 매칭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청년 인재 유입 확대 및 기업-청년 일자리 mismatch 해소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임금·소득, 고용의 안정성, 워라벨 등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인재를 적극 매칭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청년 인재 유입 확대 및 기업-청년 일자리 mismatch 해소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마련된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에 대한 근거\*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3개 사) 및 시세 감면 혜택 등 체감도 높은 혜택도 지원한다.

시는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기준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80개사를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100개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벤트에 선정될 청끝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청년고용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한다.

▲ 좋은 일터 환경 개선지원금 4천만원  
▲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 부산지역 우수기업(인) 인증 지정  
▲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부산시 관내에 소재(본사 및 주사업장 모두)하며,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21.1.1. 이전 사업자 등록)으로, 종사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23.12.31. 기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청년두드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량평가, 현장평가, 정성평가 3단계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에 최종 선정한다.

시는 청끝기업 선정 기업에 ▲홍보마케팅 ▲전담 청끝매니저 운영 ▲기업-대학 찾아가는 설명회 ▲기업-청년 취업박람회 ▲기업 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남정은 시 청년산학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들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청년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 및 고용 확대에 이어지는 대표 사례가 될 이번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에 지역 우수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2024년도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는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련 학교에 재학중인자(대학생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장학금 분야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성적우수 장학생 등 9개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또는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송군청 주민행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며, 장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대상자에게 오는 4월 중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학생 선발에 많은 학생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영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및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및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안전한국훈련은 영양군-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대형화재·인파 사고 및 산발 발생”이라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군청과 유관기관, 민간인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특히 “도론 훈련과 통합훈련의 통합 연계훈련 실시”, “재난안전 통신망을 활용한 상황실과 재난 현장 간 실시간 유기적인 소통 체계 구축” “초등학생 참관단, 고등학교 밴드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의 훈련 참여”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안전한 영양군을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준비한 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영양군은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안전한 영양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실시

봉화군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해 경우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우이다. 다만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경우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LPG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이다.

지원조건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가 봉화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은

봉화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경우 통학차 폐차 후 LPG차로 전환을 유도해 온실가스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쾌적한 환경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선일/기자



# 경북도, 2024년 도-시군 복지업무 공유·소통·협력방안 논의

## 2024년 경북의 복지정책 방향 및 현안 설명

경상북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4년 경북도 복지 분야 주요 업무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도-시군 복지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북도 사회복지·노인·장애인 분야의 주요 시책과 현안을 설명한 후, 시군 우수사례 발표,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세계 최저 출생률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대해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민관 협력 해결 방안으로 '경북저출생 극복 성공 모금 캠페인'을 추진해 모든 국민이 함께 국가 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인식하고 아이 낳고 기르려는 사회로의 대대적인 변화에 함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모금된 성금은 시군별 취약계층의 저출생 지원을 위한 완전 보육 시범사업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올해 중점 시책 사업으로는 사회 문제인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지역 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위기가구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한다.

어르신복지분야에서는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군 59개 수행기관 3,986명의 인력으로 일생생활 지원, 안전·안부 확인,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앞장선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최종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지원으로 구분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장애인과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아울러, 다른 시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매뉴얼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전



국 최초로 제작·배포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은, 지난 1월 27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되는 2,40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예방 조치로 매뉴얼이 작성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진희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도의 광역행정 추진 시 현장 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도 "복지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할 것이며 사업명감을 가지고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아울러, 경상북도 신년 키워드인 저출생 극복에 각계각층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운영

##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간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운영

예천군은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생활 편의 증진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상시 운영한다.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5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홍보소통과 전산정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읍·면 회의실,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요청한 곳으로 강사가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활용법 외에도 예천군 유튜브 등 SNS 홍보 채널 이용 방법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도 교육한다.

또 4월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통한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정 홍보소통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최적화된 교육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생활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보 격차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 경주시, 2024년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은?

## 市, '경주에서 한달 살아보기', '전입 대학생 장학금' 등 다양한 전입지원으로 인구 늘리기 나서



경주시가 올해도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선다.

먼저 시는 타시·군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주에서 한달 살아보기'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타지역 거주민들에게 경주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주 인구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이다.

이번 모집은 7팀을 선발해 1팀당 수

박비 최대 150만원, 1인당 체험활동비로 최대 3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동국대 WISE캠퍼스, 위덕대, 신경주대 등 지역 3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시 연 40만원을 지원하는 경주사랑 장학금 사업도 올해 실시된다.

전입 신고일 기준 3년간 경주 거주 이력이 없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경주 지역 내 대학생이 대상자다.

이밖에도 1년 이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2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감면 대상도 실시된다.

1년간 최대 월 5000원씩의 상수도 요금도 할인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리터 중량제 봉투 12개를 지원하는 사업도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동공원, 화랑마을, 토함산 자연휴양림, 오류캠핑장, 경주국민체육센터, 사적지 이용료 할인 등도 전입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이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경우 화장장 이용 요금이 타 시민 80만원에서 경주시민 15만원으로 65만원의 할인 혜택과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과 '경주시 자전거보'도 전입 신고 시 받게 될 특권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입 신고서 다양한 혜택에 대해 적극 홍보해 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경주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해 전입 신고 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태용/기자

# 영덕군, 2023년산 벼 정부보급종 종자대 지원

## 우량종자 공급 통해 지역 쌀 경쟁력 확보 나서

영덕군은 우량한 쌀 종자를 보급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 생산한 벼 정부보급종 계통공급분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보급종은 정부가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라 생산·공급하는 종자로, 생산 단계별 철저한 관리로 순도가 높고 품종의 고유특성이 잘 보존돼 있어 발아율이 높고 초기 생육이 우수한 우량종자여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정부보급종의 종자를 수확한 후 자가 채종의 종자로 활용해 총 3년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23년산 정부보급종은 전량 미소독으로 공급되며, 영덕군의 총 계통공급량은 56,700kg으로, 2~3월 각 읍·면 농협을 통해 종자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급 가격은 20kg 1포당 메벼 49,080원, 찰벼 50,790원으로, 영덕군은 메벼와 찰벼 모두 20kg 1포당 20,000원의 종자대를 지원해 관내 농가에선 메벼 29,080원, 찰벼 30,790원에 종자를 공급받을 수 있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황대식 소장은 "벼 종자대 지원 사업이 최근 쌀값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농가에서 필요 이상으로 정부보급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져 정부보급종의 부족 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지역 벼 재배 농가의 자가 채종을 유도하기 위해 종자대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문화/기자



# 안동시,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형' 본격 가동

## 보조금 구조조정 돌입 및 관리·감독 대폭 강화

안동시가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형'로 본격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의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보조사업 전(全) 단계에 걸쳐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도 시 자체재원 보조금 예산은 49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이 늘었고, 최근 5년간 90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늘어나는 보조금은 안동시의 주요 수입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 시 지명적인 페널티로 작용해 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안동시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6,992억 원으로 국세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로 전년대비 764억 원이 줄었

다. 국세감 소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페널티 감소분까지 겹치면 시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보조금 예산증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형' 구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2024년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일괄 삭감 조치를 강행해 고강도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이다.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형'은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페이백 운영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템e) 조기 안착 △보조사업 정산검증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동형 모델의 핵심인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은 60여 명으로 구성돼 3

월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시민평가단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총사업비 대비 효과 등이 다음 해 예산지원 및 사업 존속 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함께 적용되는 행사성 사업 페이백 제도는 올해부터 지역축제·참가비를 받는 체육대회 의무적용 등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관람료 또는 참가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행사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템e)의 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보조사업 담당자와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 보조사업의 전(全)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화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정산 외부 검증에 대한 비용 사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검증이 강화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 보조사업과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각각 검증 관련 보고서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축소가 아닌,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조금 누수 최소화는 물론 보조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우수·신규사업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모두를 위한 열린공간, '영주역 트래블라운지' 재오픈

영주시 방문객들을 위한 '트래블라운지'가 영주역에 19일 다시 문을 열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소포장광 편의 서비스 개선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2월 개소한 '영주역 트래블라운지'가 관광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다시 5월 18일까지 운영된다.

트래블라운지에는 영주시 여행 정보가 담긴 홍보물이 비치돼 있고 관광 안내를 통해 다채로운 영주 여행 정보를 만날 수 있다. 또, 핸드드론 충전 서

비스 스무개공간 마련 △다국어 쇼핑관광 키오스크 구축 등을 통해 여행자들의 쉼터이자 쇼핑관광 거점 역할을 한다.

특히, 트래블라운지는 지역 농특산품 업체와 연계해 영주시의 다양한 농·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쇼핑관광 부흥에 나선다.

재단은 영주의 우수한 쇼핑관광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관내 업체 공고를 통해 총 6종의 상품(소백산아래 '한부각', 리얼리글로브 '애플잼', 삼영에프

엔비 영농조합법인 '아침부터 사과잼', 밀라플라 '영주사과 굿즈', 소백산나무꾼곰 '소백산 벌꿀', 라삼농업회사법인 '진생라삼 산양삼차')을 선별, 트래블라운지 내 판매한다(판매가 2천 원 ~ 2만5천 원).

영주 농특산품 구매 고객에게는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운영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재단 관계자는 "영주역은 관광객이 영주를 방문해 첫 걸음을 내딛는 장소이자 여행을 마무리하는 추억의 공간이다"며 "트래블라운지가 방문객들에



게 영주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추억을 가득 심어주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 울진군, 자원재활용사업으로 탄소중립도시 실천

## 친환경 분리 배출 시스템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 도모

울진군은 다양한 자원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도시 정책에 군민들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원활한 수거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울진읍 11개소 등 총 31개소에 친환경 분리배출 시스템(클린하우스)을 설치했다.

또한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도 1억7,000만원을 들여 관내에 10개의 클린하우스를 짓기 위한 대상지를 접수하고 있다.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폐건전지 20개를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가져가면 건전지 1세트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우유 또는 주스가 들어있는 일반팩/멸균팩의 경우 크기에 따라 10매 ~ 40매 화장지 1롤로 교환할 수 있다.

울진군은 올해도 800만 원을 들여 폐건전지, 종이팩을 건전지나 화장지로 교환해 줌으로써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대전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울진군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나 폐농약 용기류를 재활용하기 위해 영농 폐비닐 집하장을 구축해 양질의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농 폐비닐 집하장에 설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보상은 2023년 한 해 7,300만원을 집행했고, 2024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군은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뿐만 아니라 무단투기와 소각행위 예방에도 일조하고 있다.

울진군은 이외에도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기간제 감시원 8명을 운영하고, 환경교육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학교, 단체,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탄소포인트 제도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문화/기자

# 경북도 송실대-문경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MOU 체결

##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의 교육과 산업발전에 새로운 전환점

경상북도는 19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송실대, 문경대, 문경시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과 학교법인 송실대학교 오정현 이사장, 송실대학교 장법식 총장, 학교법인 남북학원 신대섭 이사장, 문경대학교 신영국 총장, 문경시 신현국 시장이 참석하여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향후 두 대학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재도약하고자 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추진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협력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송실대, 문경대, 문경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신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지역에 정주할 맞춤형 인재육성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현재 경북도는 총 학령인구가 2023년 34만 6,150명에서 2040년에는 19만 2,429명으로 4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대학 생존율도 40개교에서 15개교로 37.1% 감소하는 등 대학

이 필수적이다.

공학분야 중심 AI연구 선두주자인 '송실대'의 풍부한 경험·전문성과, 지역 특화형 미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실용 학문 중심의 '문경대'가 가진 학문적 역량과 경험을 결합한다면 지역의 교육과 산업발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RISE 체계 및 글로벌대학 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

이 필수적이다.

교육·직업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대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폐교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RISE 체계 및 글로벌대학 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

이 필수적이다.

교육·직업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대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폐교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RISE 체계 및 글로벌대학 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

이 필수적이다.

교육·직업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대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폐교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RISE 체계 및 글로벌대학 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

이 필수적이다.

교육·직업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대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폐교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RISE 체계 및 글로벌대학 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

이 필수적이다.

교육·직업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대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폐교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RISE 체계 및 글로벌대학 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

이 필수적이다.

교육·직업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대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폐교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RISE 체계 및 글로벌대학 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

이 필수적이다.

교육·직업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대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폐교위기에 직면해있다.

#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겨울방학 진로체험 가상융합기술을 만나다!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겨울방학 진로체험 가상융합기술-XR'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진로체험 가상융합기술-XR'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시대 VR콘텐츠를 활용한 미래 진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미래에 각광받을 직업관련 역량을 체험하며 준비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청소년 40여명이 참여하여 가상융합기술(XR)의 기초 개념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실에서 체험 불가능한 항공기 조종사 체험, 우리의

우주발사제작 참가 및 우주비행사 훈련, 메타버스 공간에서 버추얼(virtual)스포츠 등을 체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우주체험이 현실과 같이 재밌었고 우주정거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게 되어 신기했다."며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을 체험해보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 영양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떡국나눔 행사

"가수 영탁, 대구은행이 150가구와 함께 온기를 나누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군지구협의회(회장 박정숙)에서 저소득 재가 노인 반찬 배달 사업의 일환으로 종합복지관 조리실에서 떡국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가수 영탁과 대구은행의 지원으로 적십자사봉사회 20여 명의 회원이 함께 했으며, 연초를 맞이하여 떡국 밀키트를 만들어 저소득 재가 노인 등 150가구에 전달했다.

박정숙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떡국이 추운 겨울 따뜻한 선물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도창 군수는 "오늘 나누어 드린 떡국은 이웃에게 더없이 든든한 겨울철 양식이 될 것"이라며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적십자사봉사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군지구협의회는 저소득 재가 노인 반찬 배달 사업, 홀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랑의 삼계탕 및 떡국 나눔 봉사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포항시 송도솔밭부터 영일대해수욕장까지 3만 보 24km 맨발걷기 행사 개최

오는 5월 말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맨발걷기 축제' 홍보로 준비 한창

포항시는 지난 18일 맨발학교 포항지회가 송도솔밭에서 영일대해수욕장을 걷는 '도전 3만보·24km 맨발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숲과 푸른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포항 맨발로 30선을 알리고 오는 5월 말에 개최 예정인 '제2회 대한민국 맨발걷기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6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송도솔밭에서 시작해 송도해수욕장을 거쳐 영일대해수욕장까지 24km에 이르는 코스를 맨발로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건강도 지키는 특별한 경험을 즐겼다.

또한 대한민국 맨발걷기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코스 사전답사와 함께 해안가를 맨발로 걸으며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치코밍(Beach Combing)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지자체가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 맨발걷기 축제는 전국 3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송도솔밭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올해는 맨발걷기 운

동에 대한 관심이 예년보다 더욱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용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맨발걷기를 선도하는 도시답게 제2회 대한민국 맨발걷기 축제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6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송도솔밭에서 시작해 송도해수욕장을 거쳐 영일대해수욕장까지 24km에 이르는 코스를 맨발로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건강도 지키는 특별한 경험을 즐겼다.

윤태용/기자



# 부산시·(주)풍산·부산도시공사, (주)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과제인 (주)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에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 약속

부산시는 오늘(19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풍산, 부산도시공사와 (주)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류진 (주)풍산 회장,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과제인 (주)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에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자 마련됐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도시 외곽에 조성돼 제조업 위주로 개발됐던 산업단지와는 달리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191만 제곱미터(m<sup>2</sup>)에 2조2천213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서비스, 영화·영상 콘텐츠, 융합부품소재 산업 등 4차산업 중심의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부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풍산 부산사업장이 들어서 있어,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주)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풍산은 풍산 부산사업장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 단지가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남부권의 대표적인 창업 허브로 구축돼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노후한 금사공업지역과 반여·반송지역 등 주변 지역의 변화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중으로 1단계 사업 착공 등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라

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부산의 첨단 신성장산업을 견인하며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부산시는 오늘(19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풍산, 부산도시공사와 (주)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류진 (주)풍산 회장,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과제인 (주)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에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자 마련됐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도시 외곽에 조성돼 제조업 위주로 개발됐던 산업단지와는 달리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191만 제곱미터(m<sup>2</sup>)에 2조2천213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서비스, 영화·영상 콘텐츠, 융합부품소재 산업 등 4차산업 중심의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부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풍산 부산사업장이 들어서 있어,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주)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풍산은 풍산 부산사업장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 단지가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남부권의 대표적인 창업 허브로 구축돼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노후한 금사공업지역과 반여·반송지역 등 주변 지역의 변화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중으로 1단계 사업 착공 등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라

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부산의 첨단 신성장산업을 견인하며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 구 조성사업에 따른 '풍산이전' 일반산업단지 조성

## 부산도시공사 MOU 체결



부산의 첨단 신성장산업을 견인하며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 '2024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참여기업·기관(마을) 및 리더예술인 모집

## 대구광역시 소재 참여기업·기관(마을)과 리더예술인 모집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지원센터가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4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참여예술인(리더)과 기업·기관을 모집한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기관과 예술인들의 매칭으로 팀을 이루어 기업의 이슈를 예술인의 시각에서 다채롭게 해결하며 예술인의 가치와 예술적무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 4억 3천6백만 원을 확보해 총11개 기업·기관(마을)과 참여예술인 55명(리더예술인 1명, 참여예술인 44명)을 선정한다. 참여 대상은 대구 소재 기업·기관(마을) 및 예술인으로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예술인 파견사업은 선정 후 매칭을 통해 팀 단위로 약 6개월간 협업 활동을 진행한다.

원활한 예술협업활동을 위해 진흥원은 6개월 동안 리더예술인 840만 원, 참여예술인 72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기업·기관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한 공간, 재료비 등을 협의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예술인은 기업·기관의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예술인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 대구**  
예술과 사회의 올바른 협업 '팀업' '시업'

기업·기관(마을)의 이슈를 예술로 풀고 싶은, 예술로 사회와 협업-네트워킹 하고 싶은 예술인들을 기다립니다

모집기간	기업·기관(마을) 및 리더예술인 (2024. 2. 16.(금) ~ 3. 10.(일)까지) 참여예술인(2024. 3. 20.(수) ~ 4. 10.(수)까지)
신청자격	대구 기업·기관(마을) 및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예술인 신청자격 : 신청서 최종제출일(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일 이후만 가능 3년 연속(21~23년) 참여예술인은 참여 제한, 차년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24. 5. ~ 10.(6개월) 리더 840만원, 참여 720만원 (예술인 월 활동비 120~140만원 지원) 기업·기관(마을)에는 전문 예술인 5명 매칭, 현재 이슈 예술로 해소
모집공고	대구예술인지원센터 누리집 (https://artistcenter.or.kr) 공고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접수(dgart123@dgf.or.kr) ※온라인을 통한 이메일 접수만 가능
문의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지원팀 053-430-1296

대구예술인 및 기업·기관(마을) 지원해요, 화잇 나요!

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협업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기관은 조직문화/복지후생·홍보/브랜딩·프로그램/콘텐츠 개발·공간개선/공간 활성화·사회공헌·지역사회 개발(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기타

신청·접수는 3월 10일까지 대구문화

예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예술인은 내달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별도 모집한다.

윤근수/기자

윤근수/기자



# 강원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 추진 및 도민의 응급실 이용협조 당부

## 도내 14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관련하여 도내 수련병원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2월 20일 09시 기준으로 도내 수련 병원의 전공의 중 8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미근무자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병원별로 수술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8일부터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14개소와 시군 보건소·지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비

하여 평일 연장진료 및 휴일진료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26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월 20일 06시 기준으로 도내 3개 국군병원(강릉, 춘천, 홍천)에서도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한다.

다만,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또한 전공의 사직으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응급환자 증상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의 이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수련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 강

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는 기존의 경증환자 쏠림현상에 더해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증 및 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일반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하다.

이경희 복지보건의료정책관은 “응급진료가 필요한 도민들이 소방 119구급대의 이송안내에 따라주시고, 대형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우선 치료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기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호철/기자

# 충남도, 내년 정부예산 '11조 시대' 연다

##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중점 사업 점검·전략 논의

올해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센충남이 내년 국비 11조 원 돌파를 목표로 잡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완료와 유보통합 등 녹록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 과감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지역 발전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간다는 각오다.

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홍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10조 2130억 원보다 7870억 원 많은 11조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센충남이 내년 국비 11조 원 돌파를 목표로 잡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완료와 유보통합 등 녹록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 과감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지역 발전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간다는 각오다.

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홍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10조 2130억 원보다 7870억 원 많은 11조 원으로 설정했다.

# 청년이 살고 싶은 충북, 2024 충북 청년정책 본격 시동

## 청년친화사업 954억원, 5대 분야 87개 사업

충북도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2024 충청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친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청년을 충북에 유입·정착시키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87개 사업에 954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7개 사업 318억원을 투입한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준비생의 자격증 취득, 면접비용 등 1인 최대 10만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우수기업 관계자 초청 토크콘서트를 통해 취업 노하우 공유 등 청년과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청년 창업 우수기업 사업화 지원금 지원

(최대 16백만원), 청년 근로자 근속지원금(720만원/월30만원씩 2년) 등 청년의 취·창업에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7개 사업(210억원)을 추진한다. 귀농 청년들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및 청년 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월20만원/12개월), 대학생들의 거주권 보장을 위한 충북학사 운영 등 청년 친화형 주거지원으로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한다.

또한 청년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충북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 청년도전지원 등 18개 사업(117억원)을 추진하고, 청년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삶 기반 마

련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출산육아수당, 정신건강 서비스 등 청년의 물질적·정신적 성장을 지원하는 14개 사업(296억원)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다각화하기 위해 11개 사업(13억원)을 추진한다. 다양한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 전체 위원회 청년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충북청년희망센터를 지역 거점 청년센터로 지정·신청하여 사업 범위를 넓히고 중앙 및 시군 단위 청년단체와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는 청년들의 구직단념을 사전 예방하고 초기 직장생활 정착을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23.2.13), 국비 25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청주 성안길에 '청년 점프스테이션' 설치, 5,000명의 미취업 청년들의 심층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취업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은 인구의 24%('23.12월 기준)가 청년(19~39세)으로 전국 비수도권 광역도 중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지난해 말 충북 청년 고용률은 70.6%로 광역시 제외 전국 시도 단위로 2위를 기록했다.

또한, 충북 거주 대학생의 64.5%\*는 졸업 후 충북 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20대에서 30대로 갈수록 희망 비율이 증가, 35세~3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정화/기자

# 아산시, 드론 실무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첨단인재 양성에 박차

아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대시민 드론 교육 지원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아산시 거주 미취업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스마트드론 챌린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76명의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했으며,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드론 운영 및 취·창업과 연관되는 실무

교육인 '스마트드론 실무 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1기 과정을 시행한 '스마트드론 실무 전문가 양성 교육'은 수료생들로부터 전원 만점 평가를 받을 만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 17일 이틀간 진행한 2기 교육에는 총 19명이 참여해 △정비 △방제 △진로탐색 △드론을 활용한 촬영 및 편집 등의 교육을 수료해 스마트농업 및 취·창업에 필요한 실

무능력을 습득했다.

한편 시는 드론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내부적으로 드론 업무 전담 조직을 구성해 드론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 '스마트드론 챌린저 지원사업'을 통해 대시민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드론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한덕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교육



은 자격 취득자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며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전된 내용의 실무교육을 추가 진행하여 미래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최정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고양의 더 나은 미래

##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 서울시, 힘든 집안일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확대

서울거주 중위 150% 이하 가구 대상...장애·질병 등으로 돌봄공백 가정 우선 선정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 더 많은 가정에 더 많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보다 질 높은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천 가구→1만 가구로, 지원 횟수도 연 6회→10회로 각각 확대해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 주는 사업이다. 작년 7월 시작해 6천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0,000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형 가사서비스'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시작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가사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 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다만,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 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업체 7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하여 품질 관리를 도모한다.



김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작년 시범사업에서 얻은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모두 확대한 만큼,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민선8기 공약이행"이상 무"

5대 분야 87개 사업, 완료 14개, 정상추진 70개

시민이 자긍심을 갖는 일류도시로 도약 위해,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강력한 변화를 추진중 있는 대전시는 시민들과의 약속사업인 민선8기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선8기 공약 5대 분야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공약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별 이행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완료사업은 '대전음악창작소 확충',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확대',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등 14개(16.1%)였다.

정상 추진 사업은 70개(80.5%)로 '대전0시축제'·중양투자심사 통과, '서남부중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GB 조건부 해제 완료, '나노·반도체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시-LH-도시공사협약체결)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착수,

'고속도로 문화재, 대전육교'공간디자인 용역착수 등 사업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추진중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실효성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사업의 구체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재설계, 세수감소 및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투자계획 등을 반영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글로벌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38개 공약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소요 예산을 55조 6,437억 원에서 36조 5,878억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시장 집무실에 디지털 공약실을 설치하여 시장이 추진 상황을 실시간 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분기별 공약 이행 자체 평가 결과를 대전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약 이행 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등 공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추진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전 공직자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원호/기자



## 부산디자인진흥원,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참여기업 모집

디자인 주도로 스포츠 분야 예비·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다음달 4일까지 '2024년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예비·초기창업자가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보육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업에게는 제품 및 패키지·BI/CI·웹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디

자인 개선 컨설팅', 약 1만5000명이 참관하는 '부산디자인위크 전시참가' 등 디자인 주도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최대 6750만원의 사업화지원금과 함께 마케팅·특허·회계·노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투자유치를 위한 IR행사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15개사이며 이중 40%는 경성권 기업에서 선발된다. 지원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지원금의 10%를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김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장은 "최근

스포츠가 고부가가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스포츠 산업 분야 혁신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2020년부터 디자인 특화 지역거점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재창업 부분을 지원해 재창업지원사업 운영 3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김희태/기자

## 제주시, 중앙초 주변 전선 지중화 사업 본격 추진

총사업비 34억 원 투입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초교 주변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4억 원(공사비 12억 원, 지중화 22억 원)을 투자해 가공선로 지중화 및 도로를 정비(L=720m)하는 사업이다.

중앙초교 주변 일대는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

은 전선주 등의 도시미관 저해 요소가 있어 가공선로 지중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우선 2월부터 지중화 관련 사업을 시행한 후 10월까지 도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초 지중화 사업 외에도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외도초·동광초·오라초·신광초·광양초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보

행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가로경관을 개선해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곽권/기자



## 강진 마량 120억 투자 '해양관광경제 거점' 만든다

강진군-SDN 업무협약...남시 인프라 대거 확충



강진 마량 일대가 해양관광경제 거점으로 힘차게 발돋움한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원 강진군수, 최기혁 SDN(주) 대표이사,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강진군 바다낚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 및 추진위 위촉식을 개최했다.

조직위는 강진원 강진군수, 최기혁 SDN(주) 대표이사,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강진원 강진군수는 SDN(주) 및 관계사, 최윤정·신동만 프로 등 각계 전문가 11명에게 직접 추진위 위촉장을 수여하며 성공적 대회 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 강진군과 SDN(주)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마량항 여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강진군 바다낚시 마스터스대회 개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량항 여촌신활력 증진사업이 확정되면 마량항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민간투자사업의 연계를 통해 마량항을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군은 마린 콤플렉스와 푸소 빌리지, 하버스퀘어, 스카피파크, 피셔리 마리나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SDN(주)이 민간 투자 분야에 ▲5톤급 낚시 전용선 20척 ▲선장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 ▲어선수리지원센터 구축 등에 1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8~12월 마량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강진군 바다낚시 마스터스 대회는 강진군 주최, SDN(주)의 주관으로 추진되며 ▲조직위원회 구성 ▲대회 홍보 ▲후원 등 대회의 성공 추진을 위해 이날 협약을 맺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상생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 마량항은 남해안 바다낚시 메카로 도약중이다. 연중 낚시가 가능한 지리적 이점과 접근하기가 쉽다. 낚시와 해양관광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수하다.

지난해 강진군은 바다낚시어선 10척을 유치·운영했으며 감성돔과 오징어 두 부분으로 나눠 제1회 전국 바다낚시 대회를 개최, 약 1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올해는 바다낚시어선 30척을 유치하고 바다낚시 마스터스대회 열여 낚시관광객 2만명 유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바다낚시 대회를 통해 마량을 바다낚시 메카로 도약시켜 많은 낚시객과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이번 출범식과 협약을 계기로 바다낚시 관련 공격적 정책을 적극 추진, 강진 마량을 해양레저관광경제 거점으로 조성, 지역 경제를 더욱 부흥시키겠다"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 계획 설명회 개최

2024 경북 특수교육 이렇게 바뀐다!

임종식 교육감, "설명회는 특수교육 업무추진의 정확한 이해와 학생·학부모·특수교사 모두 협력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경북 특수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히



경북교육청은 지난 21일, 도 교육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교사, 특수학교 교사,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학년도 경북 특수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특수교육 전달체계 강화

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특수교육 운영 계획 수립 취지 설명, 장애 학생 자립 생활교육관인 '꿈 담체' 운영, 제1회 '교육감 기 장애 학생 체육대회' 개최 등 신규사업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등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여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24학년도 경북 특수교육은 '모두가 존중받는 성장지원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올해 7개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방과후, 통학비 등)지원, 특수교육지원 인력 운영비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여건을 한층 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는 특수교육 업무추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생·학부모·특수교사 모두의 협력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경북 특수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및 업무용 앱 20종 개발 보급

경북교육의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을까?

경북교육청은 '인공지능(AI) 활용 실험실'에서 2024학년도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과 업무용 웹앱 20종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20종의 앱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chat GPT, HYPER CLOVA X 등의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됐으며, 이는 국내의 교육 현장에서는 사례가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발·보급된 앱들은 보도자료와 연설문 작성을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2022 개정 교과과정, 학교폭력 예방 업무 처리, 감사 업무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해주는 챗봇,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수업 부분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올해 학생 주도성 신장을 위해 추진 중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개념에 이르는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앱이 돋보인다.

교과별 탐구 질문, 교사의 발문과 학생의 답변에 기초한 질문 이어가기,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나 통합교육과정의 설계를 돕는 탐구 질문, 수행 과제 시나리오 작성 도우미 등 교사로서의 실제적 도움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여

현장 교사들의 교실 수업 개선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과 관련된 웹앱들은 지난 16일 경주에서 4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 단 연수에서 호평을 받는 등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미래 교육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관련 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23년에는 NAVER CLOUD와 협약을 통해 학교지원종합자료실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실험실(G-AI Lab)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과 교수학습 지원에 획기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해는 인공지능(AI)을 통한 학교 업무경감이 주요 과제였다면, 올해는 교수학습 지원 확장을 목표로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2024년 신학기 안전한 학교 등교를 위한 지원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주변 유해업소 유관기관 합동점검 운영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월), 신학기 개학 전, 학생 안전·건강 등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교육지원청, 성주경찰서, 성주경찰서 합동으로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중심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 행위 및 시설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부착 여부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였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발견될 시에는 각 기관에서 적극적인 보호 서비스를 지원·강구한다.

향후 성주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 유

해환경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개학기인 3월, 9월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의 적극적인 이전·폐쇄 방안 마련을 통해 학교 주변 각종 유해 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채종원 교육장은 "신학기 준비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원활한 운영과 신학기 현장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학교 감염병 안심, 예방관리를 통해 한단계 업!

의성교육지원청, 개학 대비 유관기관 간 감염병 예방관리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화) 오후 3시, 의성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학교, 교육지원청, 보건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기 개학 대비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며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향후 학교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협조 체계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감염병 발생 시 전파속도가 빨라 학생군에서 상당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체계 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에 여러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성태동 교육지원과장은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유관기관 간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신학기 대비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점검 실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함께 만들어요

이양군 교육장,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해환경 개선과 청소년 보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화), 경산경찰서, 경산시청, 경산시보건소와 합동으로 '신학기 대비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범위 내)에 위치한 학교 주변 유해 시설의 불법 행위 여부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학교 주변 유해 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 및 시설 무단 설치 여부 확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단속 ▲학교 주변 유해업소건전 운영을 위한 업주 계도 등이다. 이양군 교육장은 '신학기 대비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점검에 참여해 준 경찰서, 시청, 보건소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해환경 개선과 청소년 보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 부산교육청,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합니다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05명 위촉

올해 3월부터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직접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 현장에는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5일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상담전문가 등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05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 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이들의 조사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연수를 20일부터 3일간 동래중학교에서 운영한다. 이들은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제도 및 법령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실습 포함) ▲학생 및 보호자 상담 기법 ▲아동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문화의 이해 등을 익힐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 업무 경감과 학교 교육력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전담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동학년 수업 친구로 소통하며 마을을 관통하는 해달피 영양교육

2024 영양교육 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수), 영양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어울림 마당에서 '삶의 힘을 키우는 해달피 영양교육' 실현을 위한 '2024 영양교육계획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지역 내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양교육계획 1차 설명회와 이어, 이날 실시한 2차 설명회는 관내 초·중등 교감 및 전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2023 영양교육활동 유공자 및 기관 표창 수여식, 영양교육계획 설명 및 질의 응답, 주요 업무 전달 및 협의회 순으로 이어졌다.

2024 경북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지역 소멸 위기,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전환,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영양미래교육지구의 다양한 정책을 담은 영양교육계획을 김영희 교육지원과장이 설명하였으며, 관내 온 초등학교의 학년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했다. 2024 영양 별천지 공동교육과정은 특히 영양의 인문·자연환경을 마을 자원으로 활용한 프로젝트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어 2024 영양교육계획 3대 핵심 과제인 '맛나는 문항의 열 잇기', '영양사랑·나라사랑 마을 키우기', '도전! 해달피 별타기 프로젝트'에 대한 교사들

의 이해와 공감의 시간이 있었다. 설명회 후 영양 관내 초등학교 동학년 담임교사들의 동학년전문학습공동체 협의회 시간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세부 추진 과제인 동학년 수업친구 조직, 마을 자원지도 제작 등에 대한 학교급별·학년별 구체적 논의가 뒤따랐다.

설명회에 참석한 초등학교 교감은 "소규모 지역의 특성과 적극 행정 취지를 살려 대상에 따른 맞춤 설명회 개최가 유의미했다. 지역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연계한 생태환경프로젝트가 기대된다"라 말했다. 영양교육 및 미래교육지구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한 교사는 "영양교육계획에는 마을이 담겨 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녹아 있다. 학기 시작 전 다른 학교 동학년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희 교육감은 "사람을 기르는 일은 사랑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데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그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 별천지 영양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문항의 열과 애국지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금천구,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온도탑 올해도 100도 넘어

성금 5억 3천만 원, 성품 10억 원 등 총 15억 3천만 원 모집

금천구는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모집 실적이 15억 3천만 원으로 목표액인 14억 4천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겨울철 이웃돕기 사업이다.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하며, 이 기간에 조성된 성금·품은 연중 지역 내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나눔의 마음은 금천구 곳곳에서 전달됐다. 매년 사업에 참여하는 시흥교회, 관악농협, 티부크사회복지재단, 천재교육 등에서 올해도 김치와 쌀, 교재 등 4억 8천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했다. 구는 성품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8,700여 가구에 전달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주민, 단체,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여한 '동네방네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다. 각 동 주민들로 구성된 53명의 홍보단을 위촉해 나눔 사업을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나섰다. 어린이집 원아부터 기업까지 30여 곳에서 릴레이 기부 이벤트에 참여해 나눔의 온기를 더했다. 소상공인과 기업체 및 종교단체의 나눔도 이어졌다. 관내 상점부터 기업체까지 총 122곳에서 약 5억 1천만 원 상당의 성금·품을 전달했다. G밸리 건물 10곳에서 입주업체들과 함께 라면과 성금 등으로 총 5천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관내 종교단체 24곳에서도 총 1억 원 상당의 성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 참여자 중 (주)래피젠, 와이피피(주), 시흥교회, (주)가산웰스홀딩스 등 4곳은 고액기부자를 위한 '금천 나눔의 전달'에 등재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아부터 주민, 단체, 기업들의 심사일반 참여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감할 수 있었다"라며 "금천구의 나눔의 온도를 높여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은평구, "위기상황은 긴급복지지원으로 함께 이겨내요"…긴급복지지원금 지원

올해 긴급생계비 1인 가구 기준 71만 원,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 지원

은평구는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국가형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긴급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월 62만 3천3백 원에서 8만 9천8백 원 늘어나, 월 71만 3천1백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 인상됐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1인 가구 기준 167만 원, 4인 가구 기준 소득

429만 원) ▲재산 2억 4천1백만 원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천172만 원 이하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도시 1인 가구 기준 222만 원, 4인 가구 기준 소득 572만 원) ▲재산 4억 9백만 원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다. 국가형과 서울형의 주거용 재산 공제액은 6천9백만 원이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의료비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이 맞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3만 원, 의료비 3백만 원, 주거비 66만 원 등 맞춤형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주소지 동주

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플러스의 상담 후 동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형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 의료비 최대 1백만 원, 주거비 최대 1백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은평구 복지정책과, 은평복지하이라인으로 지원 요청할 수 있다. 24시간 보건복지상담센터에도 신고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경제적 위기가 닥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가가 더욱 강화된 긴급복지지원으로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송파구, 재난안전분야 2관왕...안전 제일 도시 인정받아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송파구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서울시 통합지원본부' 운영 역량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2관왕을 차지하며, 안전 도시 위상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먼저, 송파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송파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매년 실시하는 범국민적 훈련이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한 총 335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구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해 SK 핸드볼경기장에서 공연장 화재·인파 밀집 사고를 가정하고, 28개 유관기관과 2,000여명이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현장훈련'과 재난안전대책본

부의 '토론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연계훈련'으로 진행, ▲초동 대응 ▲비상 수습 ▲사고복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효율적인 유관기관 협력 등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도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구는 2023년 '서울시 통합지원본부' 운영 역량 부문에서도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재난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구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 지난해 3월 지휘역량강화센터 훈련에 참가해 재난상황 시뮬레이션 수행 ▲효율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 ▲지난 9월 재난안전상황실과 동일한 시스템을 중앙상황실에 설치·연계하여 송파구 전 지역 24시간 모니터링 진행 등 재난 현장의 통합 대응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강남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재건축·재개발 공금증 여기서 풀자!

21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올해 첫 교육 개최...주민 300명에게 '정비기반시설·기부채납의 이해' 강의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21일 13시 30분~15시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올해 첫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난해 활발해진 재건축사업에 발맞춰 구는 주택 정비사업별 주요 내용을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4차례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해주는 4차례의 교육을 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교육에서는 現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조합원 및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을 주제로 강의한다. 앞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이해 및 절차,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정비사업 단계별 세부·회계·실무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강연장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신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재건축의 주요 이슈인 모아타운 사업, 신속통합기획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현안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해 신청사 건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강남의 도시 환경구조가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구민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일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공예와 AI가 만난다...영등포구, 일상에 스마트 기술 입힌 강좌 마련

초등학생, 성인 대상 '융합인재 교육센터' 봄 학기 강좌 개강, 3.1까지 신청 접수



영등포구가 '융합인재 교육센터'에서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 속에 과학을 접목시킨 봄 학기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합인재 교육센터' 봄 학기 강좌는 미래 꿈나무인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고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성인들도 과학에 한 발자국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는 초등학생들이 과학에 대

한 꿈과 끼를 키워 4차 산업을 견인할 과학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스팀(STEM)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창의, 융합 인재를 키우는 스팀(STEM)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토론, 실습, 체험을 결합해 사고력을 키우고 학문에 대한 흥미도와 성취도를 높여주는 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스팀(STEM)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뚝뚝뚝! 우리는 미래 도시 크리에이터'라는 주제 아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로봇과 코딩, 드론을 사용하여 상상 속 미래도시 모습을 직접 구현한다. 3D 프린팅 기술로 무장해 전시 공간 조성, 피지컬 컴퓨터로 자율주행 시스템 조작, 항공 모빌리티를 이용한 미래 정거장 설계 등 체험과 실습에 직접 참여하며 과학을 흥미롭게 접한다. 아울러 성인 과정의 경우 최신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프로그램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패턴 제작, 레이저 커팅기로 가죽 제단 등 목공예와 가죽공예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단편 영화를 만드는 수업도 준비했다. 구는 더욱 알차게 준비한 봄 학기 강좌를 통해 아이들은 창의력과 과학 역량을 기르고, 성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과학기술을 통해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봄 학기 강좌는 3월부터 개강하며, 초등학생 및 성인 과정 모두 3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 누리집의 통합예약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과학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미래 과학교육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Advertisement for 'Sanlim' (산림) combination. It features a blue sky background with the text "“산림” 조합을 알면 “산림”이 좋아집니다." Below this, it lists "조합원 가입 자격" (Combination Member Eligibility):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Owner of land in the designated area with address or forest),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Forestry worker with address or business in the designated area), and "출자금 납부 : 20좌 이상 (1좌 : 5,000원, 최대 10,000좌)" (Contribution of at least 20 shares, 1 share: 5,000 won, max 10,000 shares). It also promotes "대리경영지도" (Proxy Management Guidance), stating "직접 경영이 어려운 산주를 대신하여 조림, 육림, 생산 등 일체의 산림경영을 산림조합이 대신 해드립니다." (We handle all forest management including planting, reforestation, and production on behalf of landowners who find it difficult to manage themselves). It encourages visiting to get guidance: "산림조합을 방문하시면 산림경영 전담지도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If you visit our forest combination, our dedicated forest management guidance staff will provide friendly consultation). Contact information is provided: "영양군산림조합 054)682-8475-7". At the bottom right is the logo for "SJ영양군산림조합". The background image shows a family smiling outdoors.



# 꼭지가 달렸습니다! 청송사과 *fresh!*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